

GIST 박영준 교수, 포스코그룹 '초격차기술 특임교수' 임명

- 전략광물·에너지소재 원천기술 확보 위한 핵심 역할 맡아 2028년 9월까지 공동 연구 및 기술자문 수행... 국제 산학연 연구성과 기반 신규 협력 확대 기대
- 리튬·희토류 분리·회수부터 CCUS 융합공정까지 지속가능 기술 연구·자원순환 분야 협력 강화... GIST의 연구역량과 포스코그룹의 산업 인프라 연계해 산학 공동연구 본격화



▲ GIST 환경·에너지공학과 박영준 교수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**환경·에너지공학과 박영준 교수**가 포스코홀딩스가 주관하는 '포스코그룹 초격차기술 특임교수'로 임명됐다고 밝혔다.

포스코그룹의 초격차기술 특임교수 제도는 철강 및 에너지소재 분야의 기초·원천 연구를 강화하고 핵심 기술 확보와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. 특임교수는 포스코홀딩스와의 공동연구, 기술 자문, 연구 성과 교류 등 그룹의 핵심 기술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. 임기는 올해 10월부터 2028년 9월까지다.

박영준 교수는 이번 임명을 통해 포스코홀딩스와 협력하여 리튬·희토류 등 핵심전략광물 분야의 기술 개발과 우수 인재 양성, 산학 공동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
박 교수는 그동안 ▲ 리튬 및 희토류 자원의 친환경 분리·회수 ▲ 철강 슬래그 및 산업부산물의 유가금속 자원화 ▲ 탄소포집·저장·자원화(CCUS) 융합공정 등에서 국제 공동연구를 포함한 산학연 협력 기반 연구를 지속해 왔다.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'AI-순환경제 클러스터링 특성화대학원'을 이끌며 순환경제 및 지속가능 기술 개발 및 인재양성을 주도하고 있다.

박영준 교수는 "에너지 전략광물의 안정적 확보와 자원순환은 탄소중립 사회의 핵심 축"이라며 "포스코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기술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"고 밝혔다.